

구리시 동구릉 문종대왕·현덕왕후 현릉제

부정공파 부산회장 權應奎翁 아헌관으로 행사



▲ 구리시 동구릉의 현릉에서 경술년의 능제가 봉행되고 있다.



▲ 권응규 아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조선왕조 제5대 임금 문종대왕 文宗大王과 그 비 현덕왕후 顯德王后 안동권씨 安東權氏의 능침은 현릉 顯陵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2-1번지 동구릉 경내에 소개하고 있다. 이곳에서 매년 6월 첫째 일요일을 정일定日로 하여 능제가 봉행되고 있다. 능에서 제향을 올린다 하여 능제陵祭라 하고

이곳의 능호가 현릉이어서 현릉제 顯陵祭라 부른다. 이 능제는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전주리씨대동종약원의 서울시 성동분원에 있는 현릉봉향회 奉享會에서 주관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안동권씨는 왕후의 친정 부원군 집안으로서 그 행사의 헌관 獻官과 제관祭官을 집사자로 배정받아 함께 참반參班하고

있다. 이번 능제는 6월 6일 일요일 12시에 봉행되었으며 문종대왕으로서는 승하 후 558주기, 현덕왕후로서는 569주기가 되었다. 작년에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래로 금년에는 문화재청에서 특히 현릉제를 영상 기록물로 보존하기로 하여 촬영반이 나와 시종일관 행례의 과정을 다큐멘터리화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집례를 주관하는 봉향회 측에서도 예년에 비해 모든 절목을 보다 엄격히 준행하고 있었다.

안동권씨 문중에서는 금년에도 현덕왕후의 직계파종인 부정공파에서 헌관과 제관을 배정받아, 서예가로서 파종회의 부회장과 부산돈목회장으로 있는 86세 고령의 권응규 權應奎翁이 아헌관 亞獻官으로 분정되어 노익장을 돋보이며 행공하였고, 4인의 집사관 역시 부산

에 거주하는 동파의 권달문 權達文, 권상흠 權相欽, 권팔승 權八勝, 권기대 權奇大씨가 분정되었다.

마침 동구릉은 기왕에 문화재청의 관리사무소가 재사 건물 안에 들어와 이를 겸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사 아래쪽에 새 건물을 신축해 이전하였고 재사의 기존 건물은 완전 해체하여 중수공사를 벌이고 있었다. 이에 이 날 행사의 모든 준비는 신축한 동구릉관리사무소 건물에서 행하였다.

10시 반 경부터 제복을 갖추어 입은 헌관과 제집사관이 관리사무소 앞뜰에서 봉향회 전례위원의 지도로 행례의 절목에 따른 일거수일투족을 숙지하는 습의習儀를 행하였다. 11시 반 경이 되어 양쪽 두개의 전도前導 황등黃燈을 앞세운 축관이 축판祝板을 받쳐 들고 나서자 그 뒤를 헌관과 제집사가 이었고, 다시 일반 남녀 참반원이 뒤따라 긴 행렬로 이루며 능으로 향하였다. 능앞의 홍살문紅箭門을 통과해서는 어도御道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정자각丁字閣 앞에 이르러 헌관 이하가 각기 직분에 따라 취위하여 도열하였다.

이윽고 본행례가 시작되어

확성기로 낭랑히 울려 퍼지는 집례자의 창홀唱笏에 따라 봉향·강신·초헌·독축·아헌·종헌에 예필禮畢 후의 망료례望燎禮까지 마치는 데는 관리소를 출발해서부터 대략 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행사를 마친 후 리주영李珠英 현릉봉향회장이 행사에 헌신한 헌관과 내빈을 소개하였고, 이어 정자각을 배경으로 각급 기념사진들을 찍은 뒤 다시 헌관 이하가 행렬을 지어 내려와 관리사무소의 임시재사로 복귀하여 탈제의 개복을 하고는 야외의 나뭇그늘 아래 느리게 마련한 음복석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날의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리운형李允珩
아헌관 : 권응규權應奎
종헌관 : 리운호李潤鎬
감제監祭 : 리우덕李愚德
집례 : 리장권李長權
대축 : 리정일李廷一
좌전左奠 : 권달문權達文
우전右奠 : 리태주李泰柱
봉로奉爐 : 권상흠權相欽
봉향奉香 : 리재근李在根
내봉內奉 : 권팔승權八勝
외봉 : 리범수李範洙
사준司尊 : 권기대權奇大
찬의贊儀 : 리원동李源東
<사진 權五焄·글 權五達>



▲ 제향을 필하고 나서 정자각 앞에서 헌관 및 제집사관과 함께 안동권씨인 참반원이 기념 촬영을 하였다.

2면에서 계속

여러 선대의 각급 세사에도 참여했는데 이같은 순례 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항구책을 세워야 한다.

둘째, 애경사시 상부상조하는 미덕을 강화하여 일종의 종원 상호조와 같은 차원으로 제도화한다. 족친간의 애경사에 상부상조하는 사업을 성실히



▲ 권영운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1일 임원회의에서 회칙을 개정하여 오늘 총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 내용은, 제1조에 각 읍면동에 분회장分會長을 두는 직제를 개설하여 각 분회장을 중심으로 종원들이 자주 만나고 모여 정보를 나누고 족친간에 애경사가 발생할 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조직관리 차원으로 승화시킨다.

셋째, 후학 계도를 위한 행사를 기획한다. 기왕에도 장학제도를 만들고 보학강좌 등을 개설하고는 싶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예비 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여의치가 않은 상태이다. 우리 권문의 선대에서 그러했듯이 내 집안부터 치가의 차원에서 윤리도덕의 배양과 기강의 확립에 힘쓰면서 사회의 모범이 되는 효행 등 귀감 사례를 발굴하여 종보사 등의 문중매체를 통해 우선 널리 전파시키고 홍보하는 데 힘써야 한

다.

넷째, 기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종친회의 기금 확충에 힘쓴다. 작년 34회 총회 때 종친회 운영기금으로 21인의 임원들이 4,110,000원을 의연해주시었는데 그 가운데는 취로사업장에 나가 받은 돈을 헌성해 주신 경우도 있었다.

현재 충주시 관내에는 1400여 세대의 안동권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가운데 종친회의 2008년도 총회에는 회원 64명이 나와 참석하였고 2009년 총회에는 41명이 참석하였다고 하였다.

회의에서는 권영수權寧壽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나서 권세오 사무국장의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년간의 결산보고가 있자 권영운 회장이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다음 회칙 개정안을 상정하여 또 한 심의 통과시켰다. 그리고 개정된 회칙에 따라 미리 인선

되었던 각지역별 분회장들에게 선임장이 수여되었다. 그 선임된 분회장은 다음과 같았다.

권오경, 권오준, 권영철, 권태욱, 권오상, 권성오, 권순철, 권천, 권태호, 권용근, 권순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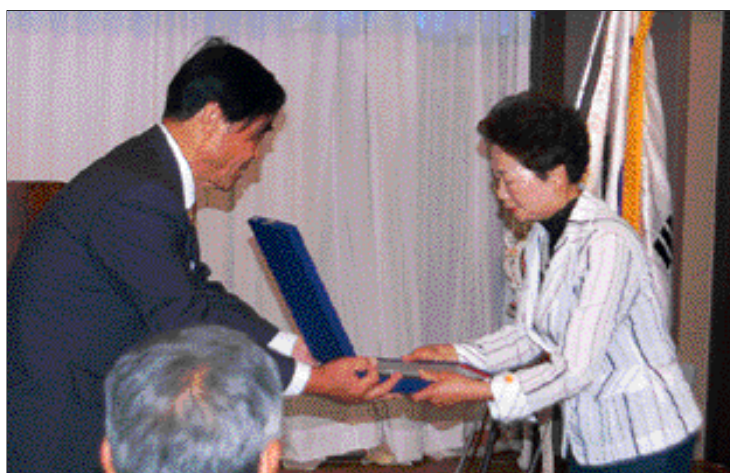
이어 부회장을 선임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권혁봉(전 사무국장)·권용

훈, 권오식(농촌지도소장), 권오협, 권영수, 권순각

기타토의의 순서에서는 미리 약속되었던대로 필자가 준비해간 자료를 가지고 나가 배포하고 국문판 안동권씨 전산화 족보에 대한 수단의 방법과 그 실무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받았다.

<사진·글 權奇允>



▲ 효부 표창패가 수여되고 있다